

남양유업, 소수 환아 위한 특수분유 36년째 생산·보급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조사한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라 불리는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저출산 시대를 맞으면서 국내 분유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소수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를 36년째 생산하고 있다.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는 모유나 일반 분유를 먹기 힘들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소수의 환아를 위해 만든 제품이 ‘특수분유’다.

남양유업은 1985년부터 다양한 특수분유 생산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특수분유는 환아 수가 많지 않아 시장이 작고 많은 연구비와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분유 회사로서 갖는 사명감 하나로 유지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단순히 생산뿐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의 환아 가족을 위해 특수분유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뇌전증 환아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케톤식 ‘케토니아’ 제품은 2010년부터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협약을 맺고 어려운 형편의 환아를 위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갈락토스혈증 환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XO알레기’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을 바탕으로 공장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 또 저체중아 및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아기를 칭하는 ‘미숙아’를 위한 ‘XO이른둥이’ 제품은 주요 사용처인 병원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14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공급 중이다.

남양유업은 이외에도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장이 불편해 묽은 변을 보는 아기를 위한 ‘XO닥터’ 등의 특수분유를 생산하면서 소수의 환아를 위한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분유 제조회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수의 환아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환아를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